

부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전격 대응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가동 4개 연안 시와 대책협의회 구성 시민 불안 해소 체계적 대안 구축 방류 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키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가 행정 역량을 결집해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28일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부산시는 4개 연안 시도(경남·울산·전남·제주)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 및 성명서 발표 등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지시에 따라 해양수도정책과를 총괄 부서로 원자력안전과 등 7개 부서가 참가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확대,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시민 안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최근 부산연 구원이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민 인식 조사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7%, "수산물과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왔다. 이에 부산시는 이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에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가동한다. 전담팀(TF)은 해수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분석하는 방사능 평가반을 비롯해 수산업계 피해사황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총괄반 등 4개반 13개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상황

공유와 지원 대책 마련 및 시민 보호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오염수 방류 뒤에는 주 1회로 확대 개최한다.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라 TF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역경제대책반과 의료지원반 등 20개 과로 확대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실시간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2기와 식품 방사능 분석 장비 2기 추가 설치비 5억7000만 원을 긴급 확보해 장비 확충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정보를 사회관계망(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시

전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남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원을 들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진주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선정

경남 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2023년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사업은 지역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국가 관광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장지원형 분야에 선정된 진주시는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리버나이트(River Night)'라는 주제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야간 콘텐츠, 야간경관 명소, 야간관광 여건을 개발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스마트 경영' 지원 13개 전통시장 선정

경남도는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 대상 시장으로 창원 명서시장 등 13개 시장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시장경영혁신 지원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40억 원(도비 16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4년간 40개 시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2월 초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13개 시장을 최종 선정했다. 시장당 1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동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 자문, 스마트경영 전담 인력지원 5개 분야로, 시장 특성 맞춤형 경영혁신을 돕는다.

공동마케팅 사업으로는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제작,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며, 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외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광주시, 특수목적 전기차 산업 육성 1단계 성과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

광주시 소화방재용 전기차 등 육성 박차

특수목적 전기차 1단계 성과보고회 수혜기업 매출 930억원 증가 성과

광주광역시가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2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유관기관, 전기차 관련 기업 2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 1단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특수목적용 전기차(PBV)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특수목적 전기차 기술개발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주관으로 '수평적 EV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21~2022년)에서는 진공성형기 등 차체·부품 설계 및 신속 제작 장비 9종을 구축했으며, 시작차 제작, 부품개발 지원 등 총 161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해 매출 930억원 증가, 신규 고용 212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 3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2023~2025년)에서는 전기차 기반 PBV유연조립 장비 등 5종의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 활용 등

을 통해 PBV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135건 이상의 기업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가칭)전기자동차부품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발기인을 위촉해 자동차 공업부품 확대를 위한 수요-공급 부품기업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지원, 특수목적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 사업의 수혜 기업은 수시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문의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

대구시-광주시 달빛동맹 강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28일 대구 시청 산격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가졌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후, 대구와 광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상대 지역에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개인의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이 최대이며, 500만 원 기부 시 최대 90만 8천 원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와 150만 원(기부금의 30%) 이내의 담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복 기자 ksb8100@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본격화

화순군, 다국적바이오기업과 협약

화순군은 28일 전남도청에서 WH O인력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다국적 바이오 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싸토리우스·머크(이상 독일) ▲싸이티바·퍼킨엘머(이상 미국) ▲이마(이탈리아) ▲뷰키(스위스) ▲비오메리(프랑스) 등 외국계 바이오장비기업 7개사와 화순군·전라남도 간에 체결한 것으로, 세계 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프

젝트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시 협조기관 참여 ▲전남 유치 확정 시 캠퍼스 실습동내 우수 장비 공급 노력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이다.

협약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명과학 분야 연구는 물론 의약품 생산과 분석 등 전 세계 바이오 실험·실습장비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대구시

'국제섬유박람회' EXCO서 열려

대구광역시의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대구 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 이하 PID)'가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오는 3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비즈니스의 막이 열린다.

지난 2002년 시작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PID는 섬유패션산업 수출 확대와 내수 거대 활성화에 기여해 온 국내 최대 섬유 소재 비즈니스 전시회로, 새로운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융복합 소재 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마트화 전환'을 이룬 전시회의 개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상복 기자